대구광역 We.Pet.and

since 1996 28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2024년 8월 22일 목요일(木) I 제5443호

가을이 오는소리…
영양 별빛 반딧불이 체험 축제

'가을'이 오는 소리가
보시락보시락 들린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영양군으로 떠나보자

관련기사 2·3면

입추(立秋)와 삼복(三伏) 가운데 마지막에 드는 복날 말복(末伏)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땡볕 더위다.

8월 달력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한낮 35도를 웃돈다.

숨이 턱턱막힐 지경이다. 내일이면 처서(處暑)다.

흔히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고 할 정도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계절의 엄연한 순행을 드러내는 때이다.

봄 이기는 겨울 없듯이 가을 이기는 여름은 없다는 말이다.

좀 늦기는 하지만 어김없이 가을은 오고 있다.

가을이 오는 소리가 보시락보시락 들린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이젠 가을이 오는 소리로 물들고 있다.

가을이 오는 소리와 함께 영양으로 가보자.

그곳에는 영양 별빛 반딧불이 체험 축제가 열린다.

이 뿐 아니다. '2024 영양고추 H.O.T Festival' 홍보에도 열을 올린다.

영양은 고추의 고장이기 때문이다.

2025 APEC정상회의 경주 유치

영양 반딧불이생태공원 청정영양 대표 공원 우뚝…

반딧불이 생태공원 입구
반딧불이 조형물 세워져
나무데크 꾸며진 탐방로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어

영양은 우리나라 최대의 반딧불이 서식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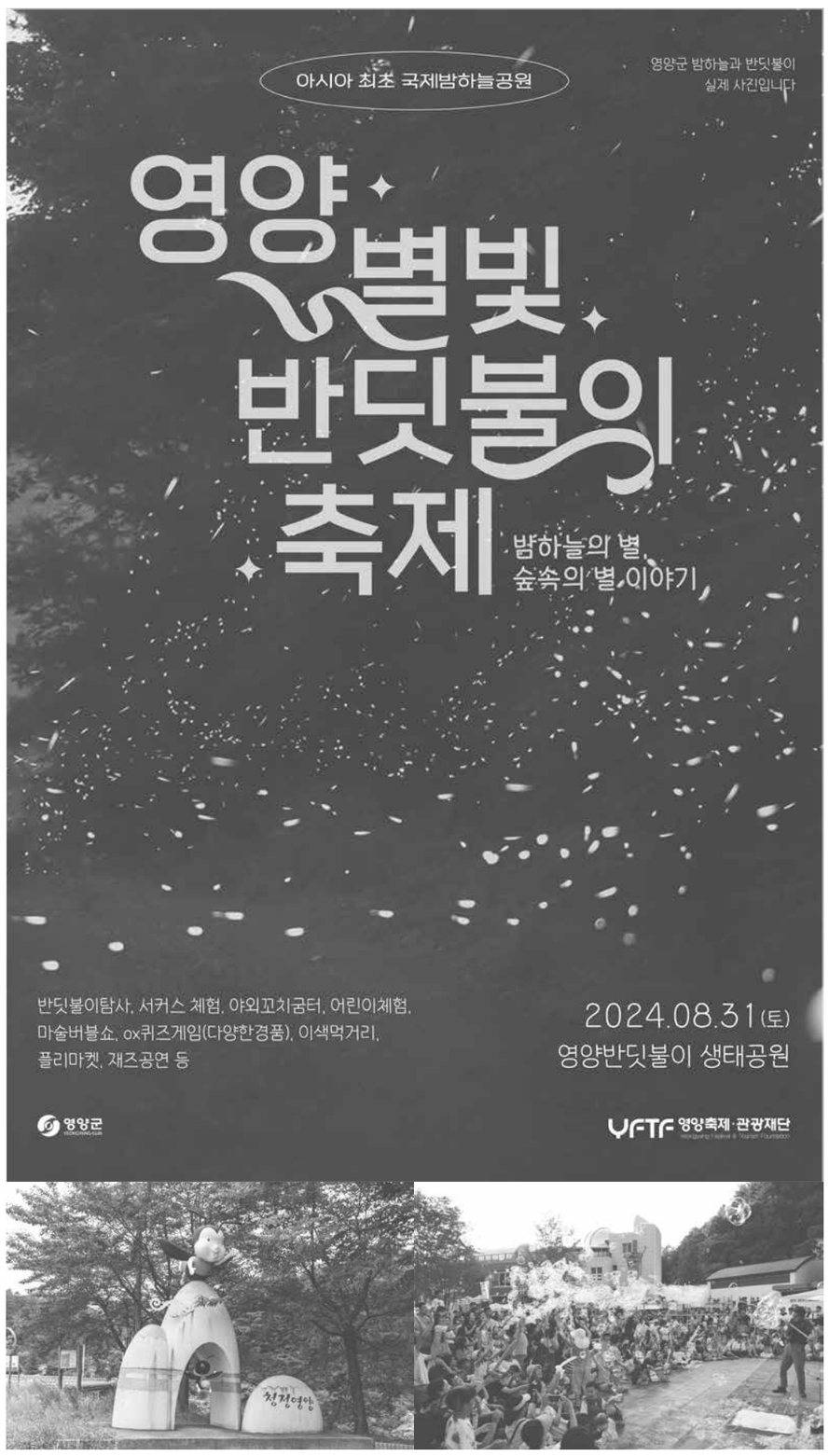
영양 반딧불이생태공원은 청정영양을 대표한다.

이곳은 도심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으로 추억 쌓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다.

천연자연경관의 아름다움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8월 끝자락 영양의 자연한경에 푹 빠져보자.

가을 하늘과 맞닿은 곳이 바로 영양반딧불이생태공원이다.



▣영양 별빛 반딧불이 체험 축제

'2024 별빛 반딧불이 체험 축제'가 오는 31일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에서 화려하게 막오른다.

이날 반딧불이가 밤 하늘을 수놓으며 덩실덩실 춤을 춘다.

반딧불이 체험 축제는 아름다운 영양군의 밤하늘과 청정 영양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친환경 문화를 선도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는 24일 저녁 7시 30~8시 30분까지 반딧불이 탐방로를 따라 늦반딧불이 서식지를 탐사하고 은하수를 관찰하는 반딧불이 탐사프로그램을 한다.

31일 행사에서는 밤하늘보호공원 내 천문대 전정에서는 저글링, 버블쇼 공연 등 볼거리, 밤하늘 OX퀴즈, 친환경 소품 만들기 체험, 재즈 콘서트, 구이굼터 등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영양군의 자연과 문화재를 주제로 한 반딧불이 사진전이 개최돼 영양 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밖의 영양군의 모습도 간접체험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인공의 빛을 벗어나 별과 반딧불이가 선사하는 자연의 빛 속에서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도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개똥벌레 이름 유래

반딧불이는 딱정벌레목 반딧불이과에 속하는 곤충에 대한 총칭이며, 흔히 개똥벌레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와 똑같은 말로 반디가 있다.

'반디'는간혹순우리말이름으로쓰이기도한다.

개똥벌레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채근담(菜根譚)'이란 책에서 "썩은 풀은 빛이 없지만 화해 개똥벌레가 돼 여름 달밤에 빛을 낸다(腐草無光化爲螢而耀采於夏月)"고 보았고, 한반도의 선조들은 반딧불이가 개똥이나 소똥에서 생겼다고 생각해 왔다.

실제 한국에서의 반딧불이를 보면, 애반딧불이의 애벌레는 수서종이니 물 근처에 살지만 늦반딧불이의 애벌레는 육생종으로 육지에 사는 달팽이 종류를 잡아먹고 산다.

옛날에는 개똥이나 두엄 등을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집 근처에 쌓아놨고 그 지역은 항상 축축했다.

달팽이 또한 해당 지역에 많았던 만큼 포식자인 늦반딧불이 애벌레도 이 지역에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늦반디의 경우 애벌레도 빛을 내는 만큼,옛사람들이 보기에는 개똥 근처에서 반짝이다가 성충이 되어 날아오르는 늦반디의 경우 개똥이나 소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시골에서 사는 노인 분들은 두엄 광에서 반딧불이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으며 연로한 많은 분들과 이야기 해볼 때, 반딧불이가 똥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이도 많았다고 한다.

또다른 추론으로는 반딧불이가 과거에는 매우 풍부하여 지천에 깔린 곤충이었다는 뜻에서 '개똥'이 '- 벌레' 앞에 붙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개똥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보잘 것 없고 천한 것을 뜻하며, 실례로 '개똥참외'는 임자 없이 길가나 들에서 저절로 자라 열린 참외를 말하는 것이다.

속담에 나오는 개똥밭 역시 기름지지 못하고 하찮은 밭을 뜻한다.

한반도는 논농사와 더불어 많은 내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습한 곳을 좋아하는 반딧불이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반딧불이 어떤 곤충

몸빛깔은 검은색이다.

앞가슴등판은 오렌지빛이 도는 붉은색이며 한가운뎃선은 검은색이고 중앙부 양쪽이 튀어나와 있다.

배마디 배면 끝에서 2~3째마디는 연한 노란색이며 빛을 내는 기관이 있다.

머리는 뒤쪽이 앞가슴 밑에 숨겨져 있고, 겹눈은 큰 편이며 작은 점무늬가 촘촘히 나 있다. 딱지날개(굳은날개)에는 4개의 세로줄이 있고 그 사이에는 점무늬와 갈색의 짧은 털이 있다.

어른벌레는 2~3일 뒤부터 짝짓기를 하고, 짝짓기 4~5일 뒤 밤에 이끼 위에 300~500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20~25°에서 20~30일 만에 부화된다.

애벌레는 이듬해 4월까지 250여 일 동안 6회의 껍질을 벗는 과정을 거친다.

애벌레는 다슬기를 먹이로 수중생활을 하면서 15~20mm까지 자란다.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비가 오는 야간에 땅 위로 올라간다.

50여 일 동안 땅 속에 번데기 집을 짓고 그곳에 머물다 40여 일 후 번데기가 된다.

6월에는 어른벌레가 되어 빛을 내며 밤에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어른벌레는 암컷이 크고 수컷이 조금 작다.

수명은 2주 정도로 이슬을 먹고 사는데, 알을 낳고 11~13일 뒤에는 자연적으로 죽는다.

어른벌레뿐만 아니라 알, 애벌레, 번데기도 빛을 낸다.

빛을 내는 원리는 루시페린이 루시페라아제에 의해서 산소와 반응해 일어나는 것이다.

빛은 보통 노란색 또는 황록색이며, 파장은 500~600nm(나노미터)이다.

한국에서는 환경오염 등으로 거의 사라져 쉽게 볼 수 없다.

▣영양반딧불이생태공원

영양반딧불이생태공원은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에 있는 수하계곡을 중심으로 조성했다.

2002년 9월 조성 사업이 완료됐다.

영양반딧불이생태공원은 군이 4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만들었다.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지푸네마을 일대, 왕피천의 지류인 장수포천의 수하계곡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면적은 2만 9,155㎡이다.

반딧불이 생태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반딧불이 조형물이 세워졌다.

나무 데크로 꾸며진 탐방로는 새로운 세계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을 준다.

이곳에는 천문대도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양군이 운영하는 시민천문대이다.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 특구 내에 위치한 영양반딧불이천문대는 여름철 밤하늘의 별과 함께 자연에 서식하고 있는 반딧불이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천체관측장소이다.

주간에는 태양망원경을 이용, 흑점과 홍염을 관측할 수 있다.

야간에는 행성, 성운, 성단, 은하, 달 관측이 가능하다.

영양군 수비면 수하계곡 왕피천 유역 자연경관보존지구 일부 지역을 포함, 반딧불이 생태공원 일대를 국제밤하늘협회가 아시아 최초로 세계에서 별빛이 밝은 밤하늘을 갖고 있는 지역을 국제밤하늘보호공원을 지었다.

2007년 미국의 내추럴 브리지스 국립 천연기념물이 보호공원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미국,독일,헝가리,스코틀랜드 등 전 세계 30개 지역이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으로 지정됐다.

국제밤하늘협회는 품질에 따라 골드, 실버, 브론즈 등급으로 나누며 영양군의 반딧불이 생태공원은 실버 등급을 부여했다.

영양군 수비면 일대에 자리한 국제밤하늘보호공원과 반딧불이생태공원, 반딧불이천문대는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해준다.

주변에 민가의 불빛이 없기 때문이다.

생태공원 주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별과 보석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의 군무를 만날 수 있다.

영양은 전국에서 가장 어두운 밤하늘을 만나는 곳이다.

국제밤하늘협회(IDA)는 영양군 수비면 수하계곡 왕피천생태경관보전지구 일부를 포함한 반딧불이생태공원 일대 390만 ㎡를 아시아에서 처음 국제밤하늘보호공원(IDS Park)으로 지정했다.

반딧불이생태공원은 반딧불이천문대, 반딧불이생태학교, 청소년수련원, 펜션 등을 운영한다.

권윤동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일보**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 www.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um.net
발행인 김 영 숙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4 영양고추 H.O.T Festival’ 성공축제 총동원

2024 영양고추 페스티벌 축제
품격높이는 철저한 품질관리로
영양이미지 제고 농정발전앞장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반딧불이천문대는 국제밤하늘보호공원 내에 자리해 여름철 밤하늘의 별과 반딧불이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낮에는 보조관측실의 태양망원경을 이용해 흑점과 홍염을 관측하고, 밤에는 행성과 성운, 성단, 은하, 달을 관측한다.

전문 해설사가 밤하늘의 별에 얼마나 많은 특징이 있는지, 별자리가 계절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게 변신하는지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별 이야기를 들려준다.

반딧불이천문대에 들어서면 플라네타리움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별자리 영상을 본다.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자리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주관측실의 406.4mm 반사굴절망원경 외에도 보조관측실에 굴절망원경과 반사망원경이 마련돼있다.

날씨가 좋으면 달과 은하, 행성, 성운, 성단까지 밤하늘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별자리 관측은 온 가족이 흥미롭게 즐기는 체험이다.

막상 별이 반짝이면 아이보다 어른이 좋아한다.

초롱초롱한 별을 보는 게 목적이라면 천문대 누리집에서 별빛 예보 확인과 천문대 예약이 필수다.

반딧불이천문대 야간 관측은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다(월요일과 공휴일 다음 날 휴관).

반딧불이생태공원과 반딧불이천문대는 여름 은하수와 별 관측 외에도 반딧불이 탐사를 할 수 있어 가족 여행지로 안성맞춤이다.

반딧불이는 청정 지역에 사는 환경 지표 곤충이다.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수비면 수하2리에서 수하3리 오무까지 영양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일대와 왕피천생태경관보전지구 일부 지역은 맑고 청정한 밤하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태백산맥 남쪽의 일월산, 울련산, 금장산 등에 둘러싸인 수하계곡 일대는 가족 여행의 핫 플레이스다.

낮에는 솔숲과 계곡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밤에는 반딧불이천문대에서 별을 헤아리며 열대야를 잊는다.

▣다슬기가 빼곡히 올라

해가 저물면 수하계곡의 바위에 반딧불이 애벌레의 먹이인 다슬기가 빼곡히 올라온다.

수하계곡에는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 파파리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를 비롯해 사슴벌레, 하늘소 등 곤충 수백 종이 서식해 아이들에게 자연 박물관으로 사랑받는다.

6월 말부터 영양군청소년수련원에서 반딧불이생태학교까지 수하계곡 하천변 1km에 반딧불이가 나타난다.

초여름에 날아다니는 애반딧불이는 밤 9시부터 11시까지 반짝이며 빛을 낸다.

어두운 숲에서 깜박거리는 불빛 하나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소가 번진다.

애반딧불이는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하천변에 주로 보이고, 늦반딧불이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생태공원 전역에서 볼 수 있다.

반딧불이가 많을 때는 나무가 크리스마스트리처럼 반짝거리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반딧불이천문대에서 만나는 별과 반딧불이가 깊은 밤의 힐링이라면, 반딧불이생태숲과 공원은 오후의 힐링이다.

반딧불이생태숲관리사무소 옆으로 울창한 숲길이 시작된다. 자연 친화적인 나무 데크에는 꽃과 나무가 함께 자란다.

이름도 예쁜 은방울꽃, 붓꽃, 작약, 금낭화 등이 피고 진다.

폭포광장에서 숲길을 따라 들어서면 늘씬하게 뻗은 소나무 숲이 나타난다.

벤치에 앉아 마시는 피톤치드가 꿀맛이다.

솔바람전망대까지 갔다가 내려와도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

▣영양고추 H·O·T Festival

영양군이 ‘2024 영양고추 H.O.T Festival’ 성공축제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군은 (사)한농연영양군연합회와 손잡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로 홍보 프로모션과 품질관리를 시행한다.

영양고추 H.O.T Festival 홍보프로모션은 전국 최고의 품질과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도시민들에게 사전홍보한다.

핫 페스티벌 행사의 품격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한농연영양군연합회가 해마다 실시해 왔다.

핫 페스티벌 행사 전 2회 가량 추진하는 프로모션은 지난 20일 서울시 송파구 일대에서 1차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오는 27일에는 행사 전 2차로 시행한다.

사전 프로모션 홍보의 효과는 행사기간 중 소비자를 행사장으로 오게 하는 촉매역할을 한다. 행사 전, 행사기간 중에 질 좋은 고추를 판매하기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추진, 영양고추의 명품화에 앞장선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행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모은다.

엄격하게 추진하는 건고추 품질관리 교육은 최종 선정된 50여 부스운영자를 대상으로 (사)한농연영양군연합회 품질관리원이 직접 현장방문한다.

포장 전·후 품목은 전반적인 품질 확인, 건조원칙 준수 검수 등의 지도로 품질관리확인서 작성, 검수확인필증을 부착한다.

미검수 품목은 행사장 반입을 철저히 제한하는 등 행사의 품격을 더욱 높인다.

남호장 (사)한농연영양군연합회장은 “영양고추 홍보 프로모션은 핫 페스티벌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사 전에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 행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영양군 브랜드이미지 제고 및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은 영양군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최고의상품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 군수는 “영양고추의 명품화와 신뢰도 확보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농업인들이 ‘영양군 홍보대사’임을 잊지 말고 민관이 함께 노력해 영양군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통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영양고추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뿌리 내린 이후로 한국의 대표 맛을 지키고 있는 고추.

고추는 고온성 작물로서 토양이 비옥하고 물이 잘 빠지는 곳에서 잘 자란다.

강우량이 적고, 일조량이 많아 고추재배 적지로 평가되고 있는 영양 고추는 고랭지에서 재배되어 당질 함량이 많고 비타민A, 비타민C 함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과일이 크고 과피가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이 나는 특징이 있다.

오랜 재배기간을 거쳐 영양고추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비초, 칼초, 무덤실초 등 우수한 고추 품종으로 개량발전했다.

재래종 영양고추의 우수한 품질로 70년대부터 전국 최고의 고추 명산지로 자리 매김했다.

영양고추 재배 기술과 품질 개선으로 고추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70년대 비닐멀칭 재배, 80년대 소형터널 재배, 90년대 비가림 시설 재배,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고있다.

영양군은 고품질의 고추건조를 위해 고추재배 전농가에 ‘고추건조마당’ 설치 지원했다.

고추 위생과 청결을 위해 수확 후 고추세척기 120대를 공급했다.

영양군 농업소득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추산업의 육성을 위해 고추전문 연구기관인 영양고추시험장과 협력,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고추 육성을 위해 전력투구하고있다.

영양군은 전국최초 소형터널을 이용한 고추재배기술 개발로 생육촉진과 수량증대에 한몫 하고있다.

군은 △산풀 퇴비 및 퇴비, 미생물과 효소를 이용한 유기농업재배 △저농약 재배로 환경 친화적인 농업육성 확대 △위생적인 고추 생산을 위해 수확 후 전량 세척하도록 권장 △100% 태양초 생산마을 육성지원 및 적극 장려 △기계 건조 시 50℃미만의 낮은 온도에서 건조하여 영양소 파괴 최소화에 앞장선다.

영야고추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빛깔 고은 선홍색으로 윤기가 난다.

김장, 고추장, 매운탕용으로 아주 좋다.

물에 잘 뜨고, 다른 고추 보다 적게 사용하여도 진한 맛을 낼 수 있다.

빛깔이 고와서 음식 조리시 정갈해 보인다.

각종 양념용으로 영양고추가 아주 좋다.

일교차가 심한 산간고랭지의 기후적 특성으로 과피가 두꺼워서 가루가 많이 난다.

활발한 동화작용으로 양분축적이 많이 되어 영양소가 풍부하다.

영양고추는 △엄선된 출하로 품질보증 획득 농산물 검사소 품질검사로 품질인증 △규격인증마크 획득 △엄격한 선별, 규격화된 제품 출하로 믿을 수 있다.

1999년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한 1명품1명소 선정사업에서 영양고추가 전국 고추 중 명품으로 지정 받았다.

영양고추는 고랭지에서 재배되어 당질 함량이 많다. 비타민 A, 비타민 C의 함량이 높다.

과일이 크고 과피가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이 난다. 풋고추, 홍고추는 과일이 크며 섬유질이 적고 단맛이 많아 식미가 좋다.

관능검사에서 수비초는 김장김치에서 다른 고추보다 맛과 색깔이 우수했다.

영양군의 2000년도 고추재배면적은 2135ha로서 1999년 대비 4%정도 감소했다.

전국대비는 약 1%정도 증가했다.

고추 소비는 가격과 소득변화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으나, 연간 소비량은 약 20만톤 (1인당 4.3kg)이다.

권윤동 기자

군위군 부계면 생활과학 탐방교실 진행

부계면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 14일 군위지역아동센터와 연합해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 생활과학교실사업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생생한 과학현장을 체험하는 탐방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4년 생활과학교실 사업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과학기술통신부·한국과학창의재단·복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운영되어 지역 아동들의 과학교육 격차해소와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부계면다함께돌봄센터(센터장 이선미)는 "이번 체험 탐방이 아이들이 스스로 적성을 탐색 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다양한 과학기술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대구·경북, 전통과 한의약 테마 '메디웰니스' 협업

2024 케이-메디웰니스 페스타 한의약산업관서 각종 장비 전시 체험형 프로그램 등 콘텐츠 구성

대구광역시는 24~26일 3일간, 대구광역시 한의사회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후원으로 대구 엑스코 서관 2홀 B에서 '한의약, 웰니스를 探(탐)하다'를 주제로 '2024 K-MediWellness Festa(케이-메디웰니스 페스타)'를 개최한다. 지난해 프리-페스타에 이어 정식 페스타로 승격되면서, 급성장(2022년 세계 웰니스 산업 규모 5조 6천억 달러, 2027년까지 연평균 8.6% 성장 전망) 중인 세계 웰니스 시장에 의료 관광에서, 한발 나아간 '메디웰니스시티 대구'로의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자 마련됐다.

이는 대구의 특화된 한의약 중심의 치유관광과 경북의 웰니스관광을 아우르는 대구경북의 협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한의약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한의체험관, K-뷰티관, K-웰니스 문화관, 한의약산업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K-MediWellness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한의체험관에서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가 직접 참여해 소아·청소년, 여성질환, 통증질환, 노인성 질환, 정신의학 등 다양한 진료체험과 더불어 체형관리 및 교정을 위한 추나 등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K-뷰티관에서는 대구 의료관광의 주류를 이루는 피부와 성형 관련 병원홍보관, 대구 우수 중소기업들의 뷰티&미용 제품 전시 및 체험, 아로마, 천연비누, 한방샴푸, 천연화장품 등 웰니스 관련 뷰티 연계 분야도 체험할 수 있다.

K-웰니스 문화관에서는 전통과 한의약을 테마로 한 일상 속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할 힐링콘서트는 물론 아로마 DIY, 천연가습기 만들기, 자개공예, 한방샴푸 만들기, 꽃차 만들기 등 다양한 웰니스 강좌를 만날 수 있는 힐링클래스도 펼쳐진다. 그리고 행사장 내에서는 한약재를 이용한 건식 족욕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페스타는 특히 외국인 3,000여 명이 참석하는 2024 국제 이론 및 응용역학회의(ICTAM) 기간에 맞춰 열려, 웰니스와 연계한 한의약과 대구의료관광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체험, 전통한복체험, 자수공방·뜨개 공방, 한방 향주머니 만들기, 약첩싸기 체험, 한방차와 전통 다과 시음 등 다채롭게 K-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한의약산업관에서는 ㈜한퓨어(한의약품), 대한한의영상학회(GE초음파 진단기), 글로벌바이오넷(한의약품), ㈜한의몰(의료기기), ㈜제일한방메디칼(한의약품), 신세계의료기(의료기기), 세림메디칼(의료용품), 비엔티코리아(의료기기), 포담원외탕전, 카멜로테크(한약제약자동화 시스템), 타스컴(진단장비) 등 다양한 한의약 관련 업체들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K-웰니스 부루마블을 통해 게임의 재미와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이벤트로, 행사장 내 모습을 SNS에 업로드하는 등의 인증을 통한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대형주사위를 던지는 방식으로 온라인과 게임에 친숙한 MZ세대들에게 큰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행사의 부대행사로 2024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학술대회가 8월 24일(토) ~ 8월 25일(일) 양일간 개최돼, 1,500여 명의 한의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또한 2024 국제 이론 및 응용역학회의(ICTAM) 참가 외국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대구의료관광과 웰니스 팸투어도 동시에 진행된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행사는 저명한 국제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대구경북의 우수한 한의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대구경북이 웰니스의료관광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계명대, 외국인 유학생들 특별 학위수여식 열어

현재 2,700명 유학생 재학 중

계명대는 20일 학사 1,011명 석사 320명, 박사 56명의 학위 수여자를 배출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학사 학위수여식을 같은 날 오전 11시에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총 139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으며, 이들 중에는 베트남 58명, 중국 유학생 57명을 비롯해 8개국의 유학생들이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사는 김선정 국제부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학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학위수여식 이후에는 졸업생들이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가 이어졌다.

중국 유학생인 이락(여, Li NUO, 23) 학생은 "계명대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개인적인 성취와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계명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졸업 소감을 밝혔다.

현재 계명대에는 2,700명이 넘는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들 중 많은 학생이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한국 내 취업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계명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학생들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유학생 지원을 위해 '인터내셔널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캠퍼스 내에 분산되어 있던 유학생 관련 업무를 한곳에 모아 다국어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권별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입학부터 학사, 생활, 졸업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유학생 전용 원스톱 통합 민원 처리 체제를 갖추고 있다.

계명대의 국제화 노력은 졸업생들의 학교에 대한 보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7일(토)에는 베트남 동문회가 결성되어 모교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145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신일희 총장은 "진정한 국제화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한 가족이 되어 외국인이 자신의 모국처럼 편안함을 느낄 때 가능해진다"며, 앞으로도 계명대학교가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화 분야에서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졸업생들에게 "세계를 향해 빛을 여는 계명인으로서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학기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식재료 관련 운송차 온도 검사

대구광역시는 가을 개학기를 맞아 초·중·고·대학교 및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총 289개소를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개학기 초기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26~내달 13일까지 3주간 대구시와 9개 구·군 및 대구식약청, 교육(지원)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보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비위생적 식품 취급,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식재료 입출입 관련 운송차량 온도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이다. 아울러 학교 급식 다빈도 제공 식품, 조리음식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와 조리음식 및 급식소 환경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함께 조리종사자 대상 교육도 병행함으로써 대규모 식중독 발생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권율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은 "가을 신학기를 맞아 집단급식소에 대한 촘촘한 점검을 통해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담부터 채용면접까지… '일자리 수요데이' 참여하세요"

대구고용센터 일자리 행사 에스엘 등 20여곳 참여 계획

고용노동부가 구인기업과 구직자에게 고용서비스를 집중 제공하는 채용 행사를 진행한다.

고용부는 8월 한 달 동안 지역의 청년 및 중장년들이 적합 기업을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업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로, 채용면접과 취업·채용 지원 프로그램 등 참여 기화를 수요일에 집중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채용행사에 2889개 기업이 참여했고,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5683회 진행했다.

8월에는 22일부터 서울강남, 인천 등 17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채용행사 24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서울고용센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이 릴레이로 참여하는 직무 설명회 '일자리 수요데이 설來임'을 개최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 현장 특강을 통해 기업문화와 직무별 채용프로세스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고용센터는 경일대학교와 공동으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최한다. 지역 강소기업인 에스엘, 남산병원 등 20여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자리 수요데이 참여기업, 직무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센터에 연락해 현장면접 일정과 특강 등 프로그램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달성교육재단, 중등영어 여름방학캠프 성과발표회

일 · 생활 양립 결의대회 개최

(재)달성교육재단은 지난 14일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2024 중등영어 여름방학캠프'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3주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된 캠프를 마무리하는 성과발표회는 참가 학생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증 수여, 캠프 영상 시청, 소감 발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달성교육재단 2024 중등영어 여름방학캠프는 해외 현지 교육 및 홈스테이 생활을 통해 실용 영어 역량을 늘리고 유연한 대처와 도전하는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 수준별로 편성된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미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홈스테이 가정에서 생활했다.

대구소방, 벌집제거 신고건수 56.1% 급증…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1일 7월 벌집 제거 신고 건수가 전년도 대비 56.1% 증가했다며 벌쏘임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소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벌집 제거 1만5850건 출동, 벌쏘임 사고 555건이 발생했다.

7~9월에만 벌집 제거 1만1603건(73.2%), 벌쏘임 사고 375건(67.6%) 등으로 전체 출동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벌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향후 벌집제거와 벌쏘임 신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황태용 기자

영천시 포도·상주시 복숭아 경북 수출 대표 핵심 작목

경북농업기술원, 영천·상주서 포도·복숭아 '세계시장' 공략 수출현장평가 문제해결 추진

경북농업기술원은 21일 영천시 포도 수출작목반과 상주시 복숭아 수출작목반에서 경북 포도·복숭아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농업기술지원단 중간 평가회를 가졌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경북 수출을 대표하는 포도와 복숭아는 핵심 작목으로서 현장 중심 문제해결로 새로운 국가 시장 진출 확대, 품질 균일화를 통한 브랜드 구축, 해외 마케팅 강화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간 평가에서 작목별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현장에서 직접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 애로 기술 해결, 우수사례 발굴 등 결과를 발표했다.

포도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에 대비한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교육 지원 및 수출 희망 농가 교육, 지난해 부터 관세가 면제된 태국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추진 경과를 검토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1일 영천시 포도 수출작목반과 상주시 복숭아 수출작목반에서 경북 포도 · 복숭아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농업기술지원단 중간 평가회를 가졌다. 〈사진=경북도 제공〉

국가별 수출 규격품 증가를 위한 품질 규격화 생산기술, 경북도 개발 신품종 재배 교육 등 포도 수출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기술지원에 대한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 산업체 등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봄철 냉해 피해 경감을 위한 시험, 재배용 봉지 현장 실증시험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복숭아 수출농업기술지원단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탄저병 관리 기술을 중간 점검하고, 수출 대상국 확대를 위한 검역 및 글로벌 GAP 인증 지원, 수출용 복숭아 수확 후 관리와 선과장 운영 효율 증진 방안, 선과장 심사지원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토론했다.

복숭아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간담회 결과에 대해 참석자들과 공유하며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의견 수렴과 전략 수립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경북도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은 경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품목을 선정해 생산 현장에서부터 유통·가공·소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해 농산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 특화작목인 사과, 포도, 딸기, 참외, 복숭아, 화훼, 감 등 7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약 120명의 산학관연 전문가(대학교수, 수출업체, 전문농업인 등)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화 작목별 종합컨설팅 사업이며 지난해 1천 74곳의 농가를 컨설팅하고, 2942명을 교육했다.

최은하 기자

대구·경북 8월 소비자심리지수 0.6p 하락

한국은행, '2024년 8월 대구·경북 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대구·경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21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2024년 8월 대구·경북 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8로 전월(107.4) 대비 0.6포인트(p) 하락했다.

전국 소비자심리지수(100.8)와 비교하면 6p 높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장기평균치(2003~2023년)를 기준값 100으로 해 이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인 소비자들의 현재생활형편CSI(94)는 전월과 동일하고 생활형편전망CSI(98)는 2p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은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생활형편전망은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을 말한다.

가계수입전망CSI(102)는 전월 대비 1p 상승했고, 소비지출전망CSI(111)는 전월과 같았다.

두 지수 모두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을 나타낸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지수인 현재경기판단CSI(80)와 향후경기전망(87)은 전월 대비 각각 1p, 4p 하락했다. 취업기회전망(86)은 전월 대비 2p 하락했고 금리수준전망(92)은 1p 하락했다.

가계 저축 및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현재가계저축CSI(95)는 전월대비 2p 상승했고 가계저축전망(97)은 전월과 같았다. 현재가계부채(99)는 2p, 가계부채전망(96)은 1p 각각 올랐다.

물가 상황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물가수준전망CSI(136)는 전월과 비교하면 1p, 주택가격전망(111)은 3p 각각 상승했다.

임금수준전망(122)도 전월 대비 2p 올랐다.

대구·경북지역 6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소비자동향조사에는 548가구가 응답했다.

소비자동향지수(CSI:Consumer Survey Index)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 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자료다.

조여은 기자

경북 산림청 주관 '우수 관리 가로수길' 최다 선정

전국 시도별 2곳 제출 중 경북 모두 선정 쾌거 달성

경북도가 2024 산림청 주관 '우수 관리 가로수길' 선정에서 김천시 조각공원 가로수길과 영주시 서원로 가로수길이 선정됐다.

도는 전국 시도별로 2개소만 제출할 수 있었던 이번 공모에서, 제출한 2곳 모두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천시 조각공원 가로수길은 김천시 신음동 일대에 있다.

총 6km 구간에 걸쳐 왕벚나무, 메타세콰이아, 이팝나무 등 다양한 수종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직지천 벚꽃길 걷기 행사'와 트리 조명 설치 등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가로수 보호와 경관 유지에 이바지했다. 영주시 서원로 가로수길은 영주시 휴천동 서원로 일대에 있다.

총 3km 구간에 걸쳐 벚나무가 아름답게 조성된 가로수길로, 지역의 역사적 문화유산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영주시 서원로 가로수길 모습 〈사진=경북도 제공〉

시는 라이온스클럽과 철마적십자회 등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가로수 관리와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왔다.

최근, 가로수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재해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가로수 관리는 재해 예방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도는 가로수 관리가 단순히 도시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재해 예방, 그리고 산림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로수는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흡수하여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등 산림의 기능을 도시 내에서 수행하며, 지역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는 이번 성과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김천시와 영주시의 가로수길이 모두 우수 관리 가로수길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은 도민들과 함께 더욱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선정으로 전국적으로 가로수 관리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한다.

전상기 기자
이경호 기자

종다리…나무가 사람 덮치고 낙뢰에 단전까지…

수도권·강원·충남 등 호우특보 발효 하늘길·뱃길 지장…피항 선원 사망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강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면서 나무가 쓰러지고, 단전·단수가 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종다리는 전날 오후 9시쯤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지만, 많은 양의 수증기를 몰고 와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 충남 북부, 제주도 동부엔 호우 특보가 발효돼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태풍 종다리에 따른 강풍·폭우 등의 영향으로 전날 오후 9시 34분쯤 전남 목포시 상동에선 나무가 쓰러지면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운전자를 덮쳤다. 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비슷한 시각 전남 무안군 해제면의 한 주택에선 낙뢰로 인한 단전 피해가 났다.

종다리의 영향권에 들었던 충남 천안에선 그 여파로 공사 현장 상수도관 파손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국의 조사 결과, 신방동 세샘중~신도브래뉴 아파트 간 도로 확장공사 구간에서 상수관로 연결부위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엔 20여 ㎜의 비가 내렸다. 앞서 전날 오후 4시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선 금구천 하상 주차장이 폭우로 침수되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 20대가 물에 잠겼다.

옥천군은 신고 10분여 만에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명문화대—비스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파크골프 산업 전문 인력양성 파크골프 선수 육성 최선다해

계명문화대학교와 비스가 손잡고 대학 동산관 대회의실에서 파크골프 산업 발전 및 활성화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13일 이뤄졌는데 계명문화대학교 박승호 총장과 비스(나이샷 파크골프) 조영란 대표 등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파크골프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파크골프 선수 육성 및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노력 △파크골프 관련 인적·물적 및 정보 교류 △성인학습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협력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영주시 서원로 가로수길 모습 〈사진=경북도 제공〉

박승호 계명문화대 총장은 "최근 파크골프 참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업 또한 성장하고 있다"며, "비스(나이샷 파크골프)와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파크골프 산업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란 비스 대표는 "계명문화대학교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인·물적 인프라 공유를 통해 파크골프 산업 전문 인력양성은 물론이고 파크골프 선수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대구·경북 온열질환자 300여명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대구와 경북에서 300여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올해 온열질환자 수를 공식 집계한 지 세 달여만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경북에서는 내륙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포항 56명, 구미 49명, 경주·김천 22명, 안동 17명, 예천군·울진군 10명, 문경 7명, 상주 6명, 경산·영주·칠곡군 5명, 의성군·청송군·봉화군·울릉군 4명, 청도군·성주군 3명, 영천·영양군·고령군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송명주 기자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임시 휴관

경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체육센터가 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위해 임시 휴관한다. 국민체육센터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임시 휴관한다.

북경주체육문화센터는 9월 한 달간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

개관 18년 차에 접어든 국민체육센터는 노후된 시설물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휴관 시 7억 9천여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보일러 및 관련 부대설비 교체 △노후 급탕·급수 배관 교체 △수영장 관련설비(분전함, 여과기, 약품 주입장치) 교체 △태양열 관련 설비 보수 등을 진행한다.

50사단, 대구·경북 지역 통합방위작전 대비태세 확립

경주소방서 등 6개 기관 참여

육군 50사단은 20일, '24년 UFS/TIGER 2일차에도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 실기동훈련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단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구, 경주, 안동, 청송 등 대구와 경북 다수의 지역에서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상황을 부여한 가운데, 실전적인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단 예하 화랑여단은 경주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에서 드론에 의한 폭탄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며, 테러범 격멸 및 시설·민간인 피해발생 간 피해복구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였다.

이번 훈련은 2025 APEC 개최를 앞두고 테러상황에 대응하는 민·관·군·경·소방의 대테러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화랑여단 기동중대와 경주대대 장병들,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등 6개 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여하였다. 훈련은 예술의 전당으로 침투한 거수자에 의한 폭탄테러가 벌어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가운데, 재난안전통제망을 활용한 유관기관 상황전파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경에 의한 거수자 제압, 폭발로 인해 발생한 화재진압과 부상자 응급처치, 환자 이송 등의 임무를 숙달하였다.

또한, 일격여단은 청송에 위치한 경북북부교도소에서 적이 침투해 폭탄테러를 자행한 상황을 부여한 가운데, 민·관·군·경·소방 전력이 통합된 통합상황조치훈련을 실시하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였다.

훈련에는 여단 기동중대와 저격반, 의성·청송대대 장병들을 비롯한 장병들과 청송군청, 청송소방서, 청송경찰서, 청송보건의료원 등 8개 유관기관에서 19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과 교도소 방호대가 합동으로 적을 소탕하고 적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였다.

지역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경주시가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올해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 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 교통사고 사례 및 화재 예방 등의 의식개선 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여객, 화물업 운수종사자들이 개정된 도로교통 법규를 이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필수 교육이다.

보수교육에 참석을 희망한다면 경북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된다.

여객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 5년 미만인 경우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물 운수종사자는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라며 "반드시 이번 교육에 참석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경주시가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금역구역 확대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의 금연 구역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당초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초·중·고교의 경우는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신설됐다.

지역에서는 유치원 55곳, 어린이집 111곳, 학교 84곳 등 총 250곳이 확대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절대 보호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행대로 흡연이 금지된다.

경주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 및 신설에 대한 개정 내용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연 표지 배부를 완료했다.

또 시 홈페이지, 전광판 및 알짜배기 소식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진병철 보건소장은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산부·배우자 대상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구비서류 지참 후 기관 방문

경주시는 다음달 2일부터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백일해는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뜻의 병명으로 신생아와 유아에게 심각한 호흡기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다.

시는 최근 백일해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산모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주시인 출산 후 2개월 이내의 임산부 및 배우자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 후 경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에 방문해 대상자 등록을 하면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임신 27~36주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진병철 보건소장은 "임신부가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으면 태아에게 백일해로부터 보호고 예방접종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주시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주시·경북도, 현대차 1100억원 투자 이끌어

(주)대성사, 차량용 핫 스탬핑 구어2일반산단 3만6896㎡ 부지 100여명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경주시와 경북도가 구어2산단 내 현대자동차 알짜 차체부품 협력사인 ㈜대성사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대성사와 함께 21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자동차용 신차 차체 부품 생산공장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허부걸 ㈜대성사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대성사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2026년까지 구어2일반산업단지 3만6896㎡ 부지에 11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플랫폼을 포함한 자동차용 차체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조성한다.

특히 차체 경량화 강성에 필수 공정인 핫스탬핑 공정을 이용해 전기차 플랫폼 라인을 만든다. 1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투자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장설립 인·허가 등의 행·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국내 자동차 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의 유치를 통해 내연차, 전기차를 포함한 연산* 170만대 규모가 예상되는 현대자동차 최고 부품 허브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내 3곳의 R&D 센터와 더불어 신소재를 활용한 차량 경량화, 친환경 자동차 개발 등 미래형 자동차 혁신 생태계 구축에 시너지 효과 창출을 예상한다.

한편 1968년에 창업한 ㈜대성사는 현대자동차의 첫 조립 차량인 1969년 코티나 부품 공급을 필두로 포니, 엘란트라, 소나타, 투싼, 코나, 펠리세이드, 넥소, 아이오닉5, GV60까지 현대차의 모든 차량에 부품을 공급해 온 기업이다.

최근 초고장력강(超高張力鋼), 알루미늄, CFRP(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성형 기술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차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허부걸 ㈜대성사 대표이사는 "대성사는 반세기 넘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한 역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며"경주공장은 차량 경량화, 친환경 부품생산 등 미래차 선도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투자는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함께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성사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대성사 허부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대성사가 경주를 기반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중부동 발전협의회, 마을문화재 탐방 진행

중부동 발전협의회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중부동 '마을문화재 탐방 및 환경정화 활동'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마을문화재 탐방 및 환경정화 활동'은 경주시 주민(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부동 마을 역사 바로 알기 문화재 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9일 경주읍성 역사체험 나들이 행사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정희택 시의원, 이혜련 중부동장, 전성환 중부동발전협의회회장 및 중부동 주민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주문화원에서 문화해설사의 지역 문화재 특강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화랑수련원, 동경관, 집경전, 읍성 등 마을 내 문화재를 탐방하며, 이동 중에 쓰레기 줍기와 잡초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전성환 중부동 발전협의회장은 "우리 마을에는 생활 속에서 문화재인지도 모르는 전근대 문화재가 많이 있다.

후대에 보존·전승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동참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혜련 중부동장은 "중부동에 산재한 조선시대 전근대 문화재가 신라 문화재에 가려져 있는 점이 늘 안타까웠다. 잘 관리하고 활용하여 중부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감포읍 대본리 '경주 이견대' 야간 경관 보강

우수 창업 아이템 가진 청년 최대 3500만 지원

경주시가 감포읍 대본리 '경주 이견대'에 야간 경관을 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적 제159호인 '경주 이견대'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 볼거리 제공과 안전한 사적지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 이견대'는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신라 제30대 문무대왕릉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정자다.

사업비는 5700만원이 투입됐으며,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예산 가운데 일부를 변경 승인받으면서 본격화됐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빛으로 물든 이견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옥 본연의 모습을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단청과 처마가 돋보일 수 있도록 투광등 21개를 설치해 문화유산과 어울리는 은은하고 세련된 경관을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통일 대업을 이룬 문무대왕의 업적과 신문왕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곳에서 통일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봉화군, 테러대비 실제훈련

봉화군은 지난 20일 을지연습 간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봉화군청 테러·화재 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2024년 을지연습 기간 중 실시한 이번 훈련의 목적은 전·평시 발생 가능한 공공시설물 테러에 대비한 진압, 사상자 구호, 피해복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상황조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날 훈련에는 봉화군, 제3260부대3대대, 봉화경찰서, 봉화소방서 등 4개 기관에서 9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내용은 적 특작부대 침투에 따른 화생방 상황을 가장해 봉화군 민방위화생방 대원을 활용한 자체방호 훈련, 테러범의 총격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타격대와 제3260부대3대대 기동타격대의 합동 작전으로 테러분자를 제압해 인질을 무사히 구출하는 등 실감 나는 훈련 상황을 연출했다.

또한 테러범이 사전 설치해 놓은 폭발물이 터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시 화재 진화와 사상자 구조를 위해 봉화소방서 및 봉화군보건소 등이 참여해 골든타임 내 화재 진압과 부상자 수습이 적시에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연습을 실시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실제훈련을 통해 지역방위 요소의 공조체계가 굳건히 유지돼 실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실전 능력 배움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상주 이안면, 軍관련 설명회

상주시 이안면은 20일이안면복지회관 회의실에서 이장, 기관단체장, 주민,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 군부대의 상주시 이전에 대한 사업 안내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되었다.

사업설명을 맡은 이안면장은 사업 추진현황, 이전의 당위성,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여 주민들에게 본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군부대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했다.

주민들은 안내에 호응하여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안면장은 이를 청취하고 응대하며 상주시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김인배 이장협의회장은 "시의 미래를 위해 면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사업추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점근 이안면장은 "시의 중흥을 위해 상주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점이 많은 사업이니만큼 대구 군부대의 상주시 유치를 위해 면민 모두가 합심하자. 자발적인 참여와 많은 홍보를 통해 시민의 저력을 보여주자."라고 말했다.

영덕군, 한우농가 지원 '현장 소통의 날' 개최

한우 최근3년 23% 이상 하락
대책 마련과 경쟁력 방안 모색

김광열 영덕군수는 최근 솟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일 영덕군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배합사료 가격은 20% 이상 높아져 고금리와 함께 한우농가의 생산비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전국 한우 사육두수가 2015년 대비 26% 증가해 과다 공급이 솟값 하락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처럼 한우 생산비가 크게 상승한 데 반해 한우 가격은 3년 전에 비해 경매가 기준 23% 이상 하락해 현재 농가의 상황은 소 1마리 판매 시 230만 원 손해가 발생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 군수는 영덕군한우협회, 영덕군한우연구회, 영덕울진축협 임원 등 10여 명을 만나 한우농가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소통 행사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완화 △사료 구매 대출금 이자 지원 △축산 기자재 보조사업의 효과적 운영 △바이오차 실증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 △구충제 지원사업 등이 논의됐으며, 김 군수는 해당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중앙부서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김 군수는 옥수수 수확 장비 관리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농가 부지 및 퇴비사 관련 규제 등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할 것을 담당 부서장에 지시했다.

박성택 영덕군한우협회 지부장은 "이번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영덕군에서 지원해 준 대형 선풍기가 온열 관련 질환을 최소화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영덕군과 한우농가가 긴밀한 협의로 작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광열 영덕군수 "조례나 법에 얽매여 단순히 행정처리에 급급해 하지 않고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일지라도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한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2학기 수강생 모집

'쿡(COOK)가대표' 등 7개 과정

예천군은 오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청소년수련관 2학기 교양·취미 프로그램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군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문화·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코딩으로 3D게임 만들기 △드론 축구 △뉴스포츠 △K-POP댄스와 치어리딩 △올탁구나! △우쿨렐레와 컵난타 △바이올린 7개 과정을 진행한다.

또,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진로 선택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 '쿡(COOK)가대표' 7개 과정도 무료로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예천군 통합교육포털(edu.ycg.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상세 내용은 예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자 주민행복과장은 "다채로운 체험 위주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역량 향상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울릉군수, 민원공무원들과 간담회

건의 사항 관련 부서 검토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19일 울릉군청에서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10여 명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민원업무의 중요성과 역할을 당부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민원 환경 정비, 민원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건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다.

남 군수는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며 "민원인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윤환 기자

예천군, 용두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설명회

예천군과 환경부는 21일 오후2시 청소년수련관 극장에서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용두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 주요내용으로는 댐 필요성, 적정성 검토, 향후 후속절차와 보상·지원에 대한 사항이었으며, 설명을 마친 후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월 31일 발표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전국 14곳(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중 첫 번째 설명회를 마친 환경부는 향후 후속절차를 통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것으로 댐 건설 대상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예천군에는 총저수량 160만톤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설명회 개최로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지역 실정에 맞는 '홍수조절용 댐'이 건설되면 극한 호우시 하류 하천의 홍수조절을 통해 군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상주 복지의 달인 26호점 탄생

상주시 함창읍에서는 커피전문점 '미카엘라'를 '우리동네 복지달인' 26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우리동네 복지달인'은 관내 기관·단체·사업체 등과 후원협약을 맺고 현금·물품 등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읍 자체 복지사업이다.

2016년 11월부터 시행되어 25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폐업 등의 이유로 현재는 19개 업체가 함께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게만 '복지의 달인'현판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에 현판이 부착된 곳은 '미카엘라'이다.

'미카엘라'는 함창읍에 소재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으로 2021년 개업하였다. 그동안 주로 명절과 연말 등에 좋은 일을 함께해왔으나, '복지의 달인'에 참여하고 있는 주변 이웃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정기후원을 결정하고 지난 5월부터 매달 3만원의 현금기부와 10만원 상당의 액상차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카엘라를 운영하고 있는 임혜경 대표는 "경기도 어렵고 매출도 많이 떨어져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네 사장님들이 좋은 일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작은 기부가 다른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여건이 되는 한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준하 함창읍장은 "큰 도움이 되기보다는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사업의 원동력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 성황리 마무리

상주시 40명 출전 종합우승
대통령배 대회 참가권 얻어

상주시에서는 지난 18일 상주실내체육관 구관에서 선수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 경상북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경상북도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상주시체육회, 상주시씨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시군대항 단체전과 10개 부문의 개인전으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초등부 이정훈(구미시), 중등부 이건우(구미시), 고등부 정명수(경주시), 대학부 박인혁(청도군), 청년부 전인석(경주시), 중년부 임명진(경주시), 장년부 방의제(포항시), 여자부 매화급(-60kg) 김서연(구미시), 국화급(-70kg) 권윤영(안동시), 무궁화급(-80kg) 예연정(포항시) 선수가 씨름왕에 선발되었으며 개인전 씨름왕으로 선발된 선수는 '대통령배 2024 전국씨름왕 선발대회'의 참가권을 얻게 되었다. 한편 상주시는 선수 40명이 출전한 가운데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으며 대회개최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종목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초중고 씨름부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우리 상주시에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경북씨름왕 선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마무리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육아센터전경

찾아가는부모교육

체험놀이

영유아 맞춤 센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건설

김천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건설한다.

관내 영유아와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아이키우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힐링 프로그램을 짰다.

무엇보다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춘 장난감도서관, 체험놀이실, 시간제보육실을 운영, 관내 영유아와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현재 시는 경북도내 6개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유일한 시 직영으로 영유아 부모 맞춤형 양육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8년도에 개소했다. 매년 이용자 수가 증가해 연간 3만여 명이 방문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은 센터를 방문했을 정도다.

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운영 지침을 준수해 양육자가 바른 육아 정보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성공 경험을 느끼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배우며, 부모와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해 뿌리부터 튼튼한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센터 운영으로 김천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어린이집지원 사업

가정양육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가정의 공통 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활동 등의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 80여 회 운영하고 있다.

공통부모교육은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을 위한 부모교육으로 자녀권리존중, 영유아발달 이해, 아동학대예방교육, 양육 태도 및 환경 점검을 위한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종이, 물감, 악기, 공 등의 재료를 활용해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춘 부모·자녀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공통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집에서도 놀(면서) 자(란다)'는 영유아 발달 과정 이해에 필요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한 후 센터에서 제공하는 놀이키트를 활용해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프로그램이다.

매회 영유아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육 교직원 필수 및 역량 강화 교육,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및 표준보육과정 교육, 어린이집 대상 DVD 상영 등 연 160회의 프로그램을 실시해 신뢰받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시는 보육교직원 교육은 어린이집 종사자의 필수 교육인 어린이응급처치 및 장애인식개선 등의 강좌를 개설해 관내 보육교직원이 타지역 교육기관을 찾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자라면 3년에 한 번은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평가 대비 사전 컨설팅과 개정된 누리과정에 대한 해설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과정을 제공,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부모·자녀체험활동을 한다.

관내 어린이집과 영유아 부모들에게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시는 급변하는 트렌드에 발맞추고자 모든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설문조사로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연간 3만여명 방문
영유아 오감 체험활동 오감놀이 프로그램
장난감도서관 맞춤 2,000여개의 놀이감 구비
어린이집 보육안심꾸러미 대여 사업 진행

▣행복한 가정 위한 센터 자체사업

영유아 오감 체험활동 '오감놀이' 프로그램, 문화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토요문화공연 및 DVD 상영, 지역사회와 유기적 연계를 위한 '장난감 나눔 장터' 등을 센터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감놀이 프로그램은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다.

영유아(6~24개월)의 균형있는 오감발달 자극을 위한 미술·신체·음악 활동의 기회를 준다.

영아들이 자유롭게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체험활동이다.

영유아 부모님들이 추가 교육 개설을 요청할 정도로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다.

센터에서는 영유아가 있는 가족이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겪었을 공연의 소재, 나이 제한, 아기의 갑작스러운 울음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토요문화공연, DVD 상영, 어린이 뮤지컬 기획공연 등으로 주말 놀이문화 제공과 가족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장난감 나눔 장터는 장난감도서관 대여 장난감 중 일부 파손되거나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사용감이 많은 장난감을 선별해 관내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기부하고, 이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나눔 장터를 개최해 판매하는 사업이다.

장난감은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폐기해야 하지만 장난감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환경을 살리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새 장난감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어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고 있다.

▣시간제보육실 운영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춘 2,000여 개의 놀이감을 구비해 영유아 가정과 기관에 대여하고 있다.

연간 1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체험놀이실에는 영유아의 신체 발달에 도움을 주고 창의력과 호기심 등을 자극할 수 있는 트램펄린, 주방놀이, 영아존 등 12종의 놀이기구가 설치돼 있다. 1일 4회차로 운영, 평일 오전에는 어린이집, 평일 오후 및 주말에는 개인회원들이 센터 누리집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실은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1명의 전담 보육교사가 상시 근무하며 일부 자부담으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 양육의 질 업그레이드

어린이집 보육안심꾸러미 대여사업은 영유아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어린이집에서 미리 체험한다.

각종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4종(교통안전, 차량이용, 재난안전, 화재예방)의 꾸러미를 지난 4월부터 대여하고 있다.

인공지능사업은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사회변화상을 반영, 영유아들이 첨단기기와 친해지는 기회를 준다.

인공지능 로봇 4대를 지난 6월부터 어린이집에 대여하고 있다. 백일·돌 상차림 및 의상 무료 대여사업은 백일이나 돌을 맞은 가정에서 직접 백일·돌상을 준비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백일(돌) 상차림 소품과 의상(한복, 드레스·턱시도)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8월부터 대여하고 있다. 대여 신청 및 물품 사진 등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대상자는 김천시에 주소를 둔 미취학아동 양육가정으로 이용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시간제보육실 월~금)이다.

회원가입,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s://www.gc.go.kr/childcare)에서 신청 및 확인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보육교직원실습

오감놀이

장난감나눔장터

장난감도서관

체험놀이실

돌상차림